



「사랑의 손길」은 '천주교 서울대교구'와 '바보의나눔'이  
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 
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## 재단법인 바보의나눔

“  
독거 어르신에게  
생활필품을 선물해주세요!  
”

“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... 하루에 밥 한 끼 제대로  
차려 먹을 돈도 없는 현실이 압담해.” - 저소득 독거 어르신

수입이 기초연금 25만 원이 전부인 어르신이 계십니다.  
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 
기준에 걸려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최저생계비의 절반  
이 채 안 되는 수입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.

월세와 병원비를 제외한 지출은 엄두도 못 내고, 전기  
세와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추위가 아니면 보일러,  
전기장판은 켜지 않습니다. 전원이 꺼진 밥솥 안의 찬밥은  
같이 먹을 반찬이 없어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어렵고, 과  
일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우리나라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만 159만 명(2020, 보건  
복지부). 그중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  
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 
율은 43.4%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가장 심  
각하며, 이는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전체 인구 중위  
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  
미합니다.

게다가 코로나19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더욱 힘들  
게 만들었습니다. 노인 세대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



보니 노인 이용 공공시설 운영과 무료급식이 중단되고, 자  
원봉사자 대면 서비스 등이 크게 줄었습니다. 이에 어르신  
들은 더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.

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‘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’을  
꿈꾸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이어 이처럼 어렵게 사  
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생활필수품을 선물하며 어르신의  
안부를 묻고자 합니다.

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김치, 도시락  
김, 간편식, 평소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영  
양제와 두유, 퇴행성 관절 통증에 필요한 파스, 손목 및 무  
릎보호대,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마스크와 두루마리 휴지,  
삶의 질을 높여주는 침구 세트와 보행 보조기를 필요로 하  
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.

“똑똑! 어르신, 선물 왔습니다.”

여러분이 보내주신 선물은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되어  
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면서 어르신  
의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감을 채워 줄 이웃의 사랑과 관심  
이 될 것입니다. 우리의 이웃 독거 어르신에게 사랑의 손  
길을 보내주세요.

**후원계좌 | 우리은행 1005-803-271075 (재)바보의나눔**  
2020년 12월5일~2021년 1월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 
후원금은 '재단법인 바보의나눔'을 위해 쓰여집니다.

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  
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**이름으로**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  
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